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한 새사람

(금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4

한 새사람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함

성경: 엡 2:15, 4:22-24, 3:17상, 골 1:27, 3:4, 10-11, 갈 2:20

Ⅰ. 새사람을 위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 엡 2:15, 3:17상.

A. 한 새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 곧 그리스도만 계신다 — 엡 3:17상, 4:24.

B. 우리는 교회가 한 새사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새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의 입지도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 골 3:10-11.

C.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 안에 한 인격으로서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오직 한 인격만을 갖고 있다 — 갈 2:20, 골 1:27, 엡 3:17상.

D. 새사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만 한 사람이다. 모두가 오직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지극히 높은 요구이다 — 골 3:10-11.

E. 새사람은 지체들(롬 12:4-5)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격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나의 인격은 누구인가? 나인가 아니면 주 예수님인가?"라고 질문해 보아야 한다.

F.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지의 여부이다 — 요 6:57하, 빌 1:21상, 골 3:4, 엡 3:17상.

1.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먹음으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섭취해 들이고 동화시켜야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격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 엡 3:8, 17상.
2. 우리는 그리스도를 취하여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되시게 해야 한다.

Ⅱ. 한 새사람이 실지로 존재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의 인격 전체를 제쳐 두고 우리의 새 인격에 의해 살아야 한다 — 롬 6:6, 갈 2:20, 엡 4:22-24, 3:17상.

A. 우리의 이전 인격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더 이상 그 인격 안에, 그 인격에 의해, 그 인격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 롬 6:6.

B.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전 인격인 '옛사람'과 '겉사람'을 부인해야 하며, 우리의 새 인격인 '속사람'에 의해 살아야 한다 — 엡 4:22, 골 3:9, 고후 4:16, 엡 3:16.

C.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표준은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한 인격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하느냐이다.

D. 우리는 우리의 외적 행동을 고치는 것을 주의하지 말고, 내적으로 옛 인격에서 새 인격으로 옮겨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 갈 2:20.

Ⅲ. 우리가 특별히 결정을 하는 면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생활은 새사람의 생활일 것이다 — 요 4:34, 5:30, 6:38, 17:4, 롬 15:32, 약 4:13-15.

A. 몸은 움직임을 위한 것임에 비하여 새사람은 생활을 위한 것이며, 우리 생활의 팔구십 퍼센트는 결정을 내리는 문제이다 — 빌 1:21-26.

B. 새사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함으로써,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 롬 15:32.

C.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분이신 그 분과 함께 새사람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

D.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 몬 14.
1. 일단 우리 자신이 한 새사람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다만 어떤 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2. 우리는 새사람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과 생활은 우리 자신의 결정과 생활이어서는 안 되며, 단체적인 새사람의 결정과 생활이어야 한다. 이것이 최종적인 요구이다.
3. 새사람의 생활은 단체적인 생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정은 단체적인 결정이며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다 — 고전 4:17.
4. 우리는 우리가 한 단체적인 몸과 한 단체적인 새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야 하며, 우리의 생활과 움직임이 모두 단체적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 고전 12:12, 롬 12:4-5.

Ⅳ. 바울은 한 새사람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의 본이다 — 딤전 1:16.

A. "하나님께서 …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 갈 1:15하, 16하.
1.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 있는 인격을 밝혀 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로 충만하게 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새 창조물이 되는 상태로 이끌려야 한다.

B.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 갈 2:20상.
1.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 안에 산다고 말하지 않고,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사신다고 말했다.
2.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C.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 갈 4:19.
1.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시도록 하는 것이다.
2.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태어나셨다.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우리가 성숙할 때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D.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 엡 3:17상.
1. 아버지 하나님은 영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심으로써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것은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의 모든 공간을 차지하시도록 허락해 드리고, 무엇이든 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그분께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거처가 될 것이다.

E.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혹은 속 부분들, 영어 회복역 참조)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 빌 1:8.
1.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내적 존재 안에서 생활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 안에서 생활했고,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했으며,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였다.
2. 바울은 자신의 속 부분들을 고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다. 바울의 내적 존재는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로 재조성되었다.

F.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 빌 2:5.

1.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각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취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이다.
2.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자 한다면, 기꺼이 우리의 생각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대치하도록 해야 한다.

G.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 고후 2:10하.
1. 바울은 그리스도의 눈언저리를 따라 행동하면서,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고 친밀하게 접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았다.
2. 바울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적셔져 그리스도와 하나였던 사람이다. 그는 타고난 생명이 부서졌고 심지어 끝났으며, 의지는 부드럽고 융통성이 있었고, 감정은 다정하나 제한받았고, 생각은 사려 깊고 냉철했으며, 영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향해 순수하고 참된 사람이었다.

H. "이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롬 8:4.
1. 실행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연합된 영을 따라 존재하는 것이다.
2.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는 가르침이나 느낌이나 관념이나 환경을 따라 존재하지 말고, 연합된 영을 따라 존재하면서 우주적인 한 새사람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V. 우리가 너울이 벗겨져 빛 비춤을 받는다면,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한 새사람을 위해 함께 일어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함을 볼 것이다 — 엡 3:17상, 4:24, 11-13.

A. 은사 있는 사람들, 곧 사도들과 신언자들과 복음 전하는 이들과 목자들 및 교사들은 이것을 그들의 목표로 취해야 한다 — 엡 4:11, 3:17상.

B. 우리는 각 지방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들이 한 새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으로 취하는 상황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 — 엡 4:11-13.

C.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으로 취한다면, 그때 우리 모두는 자연히 한 새사람이 될 것이다 — 엡 3:17상, 4:24.

D. "궁극적으로 성경은 교회를 한 새사람이라고 말한다. … 새사람 안에는 인격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수준은 너무 높아서 더 이상 높을 수 없고, 너무 엄격해서 더 이상 엄격할 수 없으며, 너무 친근해서 더 이상 친근할 수 없다. 모두가 한 새사람이다. 이 한 새사람은 오직 한 인격을 갖고 있다. 이 인격은 바로 주 예수님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7년, 3권, 한 몸, 한 영, 한 새사람, 475쪽)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새사람

우리의 새 인격의 출생

골로새서 3장 11절은 새사람 안에는 타고난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그러나 새사람은 우리의 영 안에서의 새로운 출생(요 3:6)으로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출생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한 새사람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살전 5:23). 사람의 인간 생명은 혼 안에 있다. 혼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아이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바깥의 물질세계를 접촉하는 외적 기관인 몸과,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접촉하는 내적 기관인 영이라는 두 기관을 가진 혼(행 7:14), 곧 한 인격이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그분은 생명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다. 이제 우리의 영 안에는 다른 종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있다. 전에 우리는 우리의 혼 안에 인간 생명만 갖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신성한 생명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영은 이제 한 인격이 되었다. 전에는 영이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단지 하나의 기관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을 가진 하나의 인격이 되었다. 다시 태어남으로 당신은 다른 인격이 되었다. 전에 당신은 타고나고 혼적인 인간 생명을 지닌 혼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제 당신은 신성하고 영원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을 영 안에 가지고 있다. 거듭남으로 당신은 회심하여 다른 인격이 되었다. 전에 당신의 인격은 혼이었지만, 이제 당신의 인격은 당신의 영이다. 이제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혼에 의해 살지 않고 당신의 영에 의해 살아야 한다. 당신은 당신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또한 당신의 영이 당신의 인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새 인격의 성장

요한복음 3장은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난 새로운 출생에 대해 우리에게 말한다.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아기들에 대해 말한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젖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자라야 한다. 이 성장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갓난아기들이 자란다는 것은 그 아기들이 그들의 생각에 많은 지식을 넣는다는 뜻이 아니다.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 자신이 증가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증가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참된 성장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지만, 자라기 위해 우리는 그분을 누려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호흡해야 한다. 우리는 거듭거듭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날마다 조금씩 우리 안에서 증가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성장이 중단되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비록 이십오 년 전에 거듭났을지라도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은 당신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와 거의 같을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혼 안에 많은 지식을 담았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성경적인 모든 가르침들과 기독교의 모든 규정들을 배웠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심지어 찬송을 놀랍게 부르는 법까지 배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의 혼 안에서 얻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인 당신의 영 안에는 증가가 거의 없다. 당신은 늙은 아기, 즉 그리스도인이 된 지는 여러 해가 되었지만 생명의 성장이 거의 없는 사람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해 전에 구원받았고,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들을 배웠으며, 유명하고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자랑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얻은 그리스도는 얼마나 되는가? 어떤 어린 형제는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되지 않지만 그들이 가진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를 얻었을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혼 안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영 안에 얻은 그리스도는 거의 없을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우리의 새 인격에 의해 생활함

다시 태어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새로운 출생 후에 우리는 자라야 한다. 자란다는 것은 다만 우리 안으로 더해지고 일해 넣어진 그리스도를 더 갖는 것을 의미한다. 전에 우리는 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이전 인격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갈 2:20). 우리는 이 사실을 취하고 실행해야 한다. 우리의 이전 인격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인격 안에서, 이 인격에 의해서, 이 인격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이 ‘옛사람’(롬 6:6, 엡 4:22, 골 3:9)과 ‘겉사람’(고후 4:16)이라고 부르는 우리

의 이전 인격을 부인하고, 우리의 새 인격인 '속사람'(엡 3:16)에 의해 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이제 다른 인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는 우리의 영 안에서 새 인격이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제 하나이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더해진 새 인격인 우리의 영은 우리의 개성이기까지 하다. 이제 우리의 개성은 혼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인격 안에서 살지 말아야 하고, 옛 인격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새 인격에 의해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가? 가령 한 형제가 뭔가를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간다고 하자. 그는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지 말아야 한다. 그가 점검해야 할 첫 번째 것은 그가 가는 것이 그의 혼에서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그의 영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이전 인격에 의해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그의 현재의 인격에 의해 시작되었는가? 옛사람에 의해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새사람에 의해 시작되었는가? 혼에 속한 사람에 의해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속사람에 의해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그의 새 인격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교리로 배우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생활에서 우리는 여전히 온통 우리의 옛사람 안에 있다. 뭔가를 사러 백화점에 가는 것은 나쁜 것이나 악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이전 인격의 활동일 수 있다.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옛 인격 안에서 살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선한가 악한가를 생각하면서 할 뿐, 그것이 옛 인격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새 인격에 속한 것인가 하는 원칙에 따라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이들이지만 우리의 새 인격 안에서 거의 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선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실 의도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이 새 인격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물건을 사느냐 안 사느냐, 쇼핑을 하러 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누가 가느냐, 즉 이전 인격이 가느냐 아니면 현재 인격이 가느냐, 혼 안의 인격이 가느냐 아니면 영 안의 인격이 가느냐에 있다. 만약 혼 안의 인격이 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거기 계시지 않을 것이고, 영 안의 인격이 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 안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새 인격은 당신의 영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당신의 영, 이 둘이 하나로 함께할 때 당신은 당신의 새 인격의 개성을 갖는다. 당신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인격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전에 당신은 어떤 종류의 인격이었지만, 거듭나서 절대적으로 다른 인격이 되었다. 당신은 전에 혼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는 별 의미가 없다. 당신은 날 때부터 부드럽고, 온순하고,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느리고, 조용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항상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당신은 화를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을 좋아할 것이다. 또 한 면으로 나는 날 때부터 거칠고, 엄하고, 사납고, 성미가 급하고, 참을성이 조금도 없을 수 있다.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좋게 태어났는지 나쁘게 태어났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나빴을지라도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하고,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선했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의 민족, 국적, 타고난 기질이 어떠하든 우리는 모두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러한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똑같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는 더 이상 옛 인격에 의해 살지 말고 절대적으로 새 인격에 의해 살아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옛 인격에 의해 산다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한다. 그것이 옳으면 그것을 할 것이다. 그것이 그르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표준은 인격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표준이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표준은 행동이 아니라 반드시 인격이어야 한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좋든 나쁘든,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즉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주의해야 한다. 우리의 옛 인격이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새 인격이 하려고 하는가?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누가' 하느냐에 있다. 십자가의 일의 참된 주관적인 방면은 당신의 옛 인격을 못 박는 것이다. 더 이상은 옛 인격인

내가 아니라 새 인격인 그리스도여야 한다(갈 2:20). 이것은 당신의 행동을 고치고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가 옛 인격에서 새 인격으로 바뀌는 문제이다.

우리의 새 인격 — 교회생활의 실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교회생활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이 새 인격 안에 있는 것임을 보게 하시기를 바란다. 당신이 아무리 좋고, 참을성 있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온화할지라도 당신이 옛 인격 안에 있는 한, 당신은 교회생활을 체험할 수 없다. 당신이 아주 느긋한 사람일지라도 당신이 여전히 옛 인격 안에 있다면, 당신은 교회생활에서 끝난 것이고 교회생활도 당신에게서 끝난 것이다. 교회생활은 절대적으로 새 인격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각 사람 안에는 새 인격이 있다. 이 모든 새 인격들을 함께 더한 것이 교회이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새 인격들의 합계요 총합이다. 교회생활은 우리의 영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랄 필요가 있고 반드시 자라야 한다. 다시 태어남으로 우리는 갓난아기들이 된다. 이제 우리는 자라야 한다. 단지 기능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인격에 있어서, 곧 우리의 속사람에 있어서 자라야 한다. 영 안에 있는 우리의 인격 전체가 자라야 한다.

이런 이유로 에베소서 3장은 우리가 능력으로 강해져 속사람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한다(16절).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이지만, 능력 즉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하는 능력, 다스리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다. 자라려면 우리는 강해져야 하며, 강해지는 것은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내적으로 그리스도로 충만되는 이러한 몇 가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먹을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마실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호흡할수록, 우리가 내적으로 그리스도로 더 충만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진다. 우리가 더 강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더 힘 있게 된다. 그 어떤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 주위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죽음은 부활 능력에 의해 정복된다. 우리가 힘 있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초월하고 정복하며 다스린다. 이렇게 강해지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증가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새 인격인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매일 자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관념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배경에서 얻은 모든 잘못된 관념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계시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다시 태어난 이들로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옛 인격 안에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옛 인격을 부인하고 거절해야 하며, 이제 우리에게 새 인격, 즉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이 새 인격에 의해 살고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를 주의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오직 한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그것은 어떤 인격이 그 일을 하는가, 즉 옛 인격인가 아니면 새 인격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 한 가지로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새사람, 우리의 새 인격과 관련하여 약하고 공허하다고 느낀다면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저의 상황을 보소서. 저는 제 새 인격과 관련해서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힘 있게 될 것이다.

필사적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는 법,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법,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을 마시는 법, 매일 그분을 호흡해 들이는 법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우리의 새 인격이 자라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새 인격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거나 깨달을 수 없지만, 어느 날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될'(엡 4:13-14) 것이다. 그러한 충분한 성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체험을 통해, 실재이신 그리스도께서 축적되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내나 힘이나 생명으로 조금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는 종일 새 인격에 의해 살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형제를 방문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방문이 우리의 옛 인격, 옛 자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새 인격인 우리의 영에 의한 것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점검하고 합당한 답을 얻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옛 인격 안에서가 아니라 새 인격 안에서 방문해야 한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

게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머니는 그녀의 옛 인격이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새 인격이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우리는 옛 인격에 의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새 인격에 의해 살고 있는가? 오직 새 인격 안에서 살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다. 종일 우리는 반드시 새 인격에 의해 살아야 한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당신은 이 한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학교에서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사용해야 하지만, 옛 인격이 아닌 새 인격이 당신의 생각을 사용해야 한다. 언제든지 공부할 때마다, 어떤 인격이 공부하려고 하는지 점검해 보라. 만약 당신이 새 인격 안에서 공부한다면,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새 인격의 통제 아래서 하나의 기관으로서 당신을 위해 작동할 것이다. 당신이 옷을 입으려고 한다면, 어떤 종류의 옷을 입을 것인지 점검하지 말라. 먼저 당신은 누가 옷을 입으려고 하는지, 곧 옛 인격이 입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새 인격이 입으려고 하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새 인격인 우리의 영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의 옛 인격에 의해 산다.

새사람을 입음

우리는 모두 교회생활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새 인격에 의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우리는 높은 도덕적 표준에 의해서 살아서도 안 되고, 부도덕한 표준에 의해서 살아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 어떤 행동의 표준에 의해서 살지 않고 한 인격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의 옛 인격인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새 인격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한다. 겉사람은 감소되어야 하지만 속사람은 증가되어야 한다. 우리는 실지로 우리 속에 두 인격을 갖고 있다. 하나는 옛 인격이고, 다른 하나는 새 인격이다. 옛 인격은 감소되어야 하지만 새 인격은 증가되어야 한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새 인격에 의해 살지 않고 옛 인격에 의해 사는 데 있다. 우리는 옛 인격에서 새 인격으로 바뀌기 위해 계시가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고 단체적인 교회생활인 새사람을 입을 것이다(엡 4:23-24).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 곧 단체적인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22, 24절). 우리는 모두 옛 공동체 생활인 세상적인 사회생활을 벗어 버리고 새 공동체 생활인 교회생활을 입어야 한다. 우리는 조금씩 교회생활을 입는다. 우리는 교회생활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사회생활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점차적으로 옛 공동체 생활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교회생활을 입는다. 이것이 오늘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결국 우리의 새로운 출생과 새 인격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새사람(골 3:11)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생활이다.

새로운 출생 후에, 우리는 교리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매우 체험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자라야 한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자라야 하고 우리의 새 인격에 의해 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바깥 행위를 고치는 데 주의하지 말고, 오직 옛 인격에서 새 인격으로 내적으로 바뀌는 것만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반드시 새 인격에 의해 살고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힘 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참된 증가와 생명의 성장을 가질 것이다. 그럴 때 옛 공동체 생활을 떨쳐 버리고 새로운 교회생활을 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로 충분히 성장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합당한 교회생활 안에 있을 것이고, 영 안에서만이 아니라 실재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실재를 체험할 것이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자랄 것이다(엡 4:13). 어느 날 주님은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이 지점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분은 이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아마 그때가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일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0년, 2권,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두 기도, 623-633쪽)*